

조계종 동안거해제 방장범어



일하스님
(영축총림 방장)



서용스님
(고불총림 방장)



원담스님
(덕숭총림 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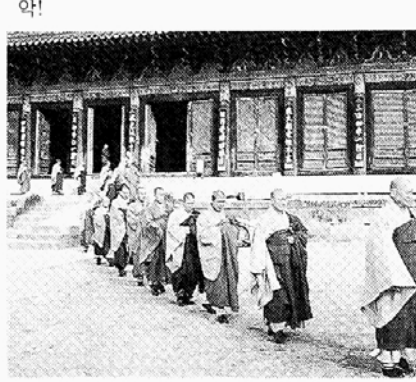
법전스님
(해인총림 방장)

“日日常行(일일상행)에 未盡行(미증행)이요, 隨時喫飯(시시끼반)에 未盡喫(미증끼)이로다”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에서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시시 때때로 밥을 먹음에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이지 본래면목(本來面目)이 아니라는 것이요, 밥을 먹는 것도 우리의 육체이지 우리의 식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략>

깨달았다 못깨달았다 하는 것이 본별심에 있는 것이지 진리에서는 인과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마음을 찾아 보는 것 즉 눈으로 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자기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 공부의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시켜서 되는 것도 절대 아니니 스스로 행하고 부지런히 닦아서 깨친곳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有麝自然香(유사자연향)
 何用當風立(하용당풍립)
 향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향내가 나는데 일 부러 향내를 내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자기 가 닦은 수행력이 있으면 저절로 남이 알아 주는데 구태여 자기가 깨달았다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비유한 것으로 이런 사람을 살펴보면 미혹하고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후략>

春暖相呼出翠微(춘완상호출취미)하야
 時行時坐幾忘疲(시행시좌기망피)로다.
 黃昏一陣東風雨(황혼일진동풍우)에
 未免渾身透濕衣(미면혼신투습의)로다.
 噫(합)!
 봄 날씨가 따사로우 풀밭으로 풀러나가 앉았다 절었다 하기에, 돌아갈 길 잊었네 황혼되자 한방탕 소나기가 쏟아져 살갓이 비치도록 함박 젖고 말았네 악!



○법주사 총지선원 스님들이 해제법어를 미치고 처소로 돌아가고 있다.

三冬解制庭可事(삼동해제시하사)
 東出日西方沒(동출일서방몰)
 此竹坡竹化去竹(차죽파죽화거죽)
 年年歲歲過然竹(년년세세과연죽)
 삼동해제가 이 무슨 일인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네
 이대로 저대로 되는대로
 해마다 해마다 세월은 그런대로 지나가네 악!

白雲原來無根浮(백운원래무근부)
 滴水自流來處流(滴水自流來處流)
 清淨自來無處住(청정자래처지)
 故根猶守半橋枝(고근유수반교지)
 忽道疏花自覓香(忽道疏花自覓香)
 백운은 원래 뿌리없이 떠있고 맑은 물은 스스로 흘러 온곳으로 돌아가네 옛 뿌리가 반쯤 마른 가지들 애써 지키더니 홀연히 등성등성 꽃을 피워 스스로 기이함을 보이네.

師弟冬裏不盡過(사제동리불거과)니
 刺得一隻沒底靴(자제일쌍물저화)로다.
 直至于今無消處(직지우금무착처)하니
 大家赤脚踏玉塵(대가적각장전가)로다
 스승과 제자가 겨울을 못되어 보내지 않고 바닥없는 신 한 켤레 삼아 놓았네. 오늘에 이르도록 끝모가 없어 온 식구 맨발로 발노래를 부른다.
 <중략>
 시회제대중들이여!

開一片田(개일편전)하니
 密密綿綿(밀밀면면)이요
 兩鬢猶微(양번유미)하니
 故根猶守半橋枝(고근유수반교지)로다
 한 뼤의 밭을 일구니 밀밀히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두 뼤의 죽과 밥을 먹으니 도가 저절로 이루어졌구나.

진정한 해제는 공부를 완전히 해마쳤을 때라야 비로소 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제라고 해봐도 큰방에서 행하던 화두를 만행하면서 행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해제가 곧 절제라는 마음으로 일주문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미리보는 선우도량 수련결사 '초기불교정신과 한국불교'

‘초기불교 정신과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 선우도량 제14회 수련결사가 23~24일 실상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수련결사는 승가의 수행풍토 확립이 한국불교 발전의 관건이라는 인식 아래 출가수행자의 시대적 역할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조발제에서는 정각스님(중앙승가대학 불전국역연구소)과 오성스님(제주 백련사)이 ‘초기불교 수행자상과 한국불교 수행자의 새로운 모색’과 ‘초기불교의 시대적 역할과 한국불교의 시대적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정각스님은 발제문에서 “초기불교의 수행자상은 ‘발정도의 실행을 통해 열반적 경지에 나아가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 시대적 이념과 주변인식의 변화에 따른 출가수행자상의 재조명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와관련 출가수행자는 정치적 견해 및 호국불교의 이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 출신이나 가문이 아닌 행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자 오성스님(제주 백련사)은 “부처님의 출가가 새로운 사상과 세계를 원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종교는 그 시대와 사회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오

“출가 수행자 경제·인권·환경 등 연기사상으로 계도”

늘날 대두되고 있는 수행자의 시대적 역할문제는 무아사상과 연기론에 입각한 초기불교의 사상과 수행자들의 삶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 정치, 경제, 종교 등 현실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민족(통일) 문제에 대해 스님은 “강대국의 허구적 분단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통일이며 그 해결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종교인들의 정치참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때 승가의 정치적 참여는 불가하다는 단순한 입장을 고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스님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은 무소유정신”이라고 말하고 “물질만능주의와 경쟁에서 이기므로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서구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문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불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업의 주체적 자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환경문제는 연기사상에 입각, 모든 생물이 물이 아닌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에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물질만능주의의 세계관 속에서 종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들어 미래의 종교는 종교간의 대립과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하여금 보편적이고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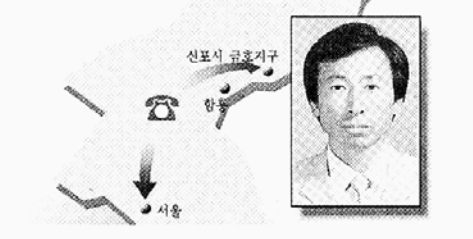
“북한주민 법회 참석할 날 오길”

北경수로 현장 ‘연꽃회’ 회장 김경철씨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불자 모임 ‘연꽃회’를 이끌고 있는 김경철회장(한진 원자력 건설본부 과장)을 건설현장과 서울을 연결하는 직통전화로 만났다. 김회장은 현지 상황과 연꽃회의 법회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설명했다.

콘테이너 법당 마련 ‘법회 여건 아직 열악’

- 현재 법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본부측에서 마련해 준 콘테이너 공간에 영단을 만들어 종이예 ‘佛’자를 크게 써서 붙이고, 향과 초는 인근에서 빌려서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져온 불서 한권을 토대로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사홍서원 등을 담은 간단한 법회교재를 직접 만들어 영불 독경위주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것인가.
 △법회를 제대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만, 종교활동용 목격으로 스님이나 법사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교계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포시 금호지구 현장 김경철씨

- 법회 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회원이 초심자들이라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불서가 필요합니다. 작은 불상이나 탱 함께 작업하고 있는 3백여명의 북한 직원들과는 작업이외의 대화는 금지돼 있지만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건설공사도 진척되면 북한주민들도 함께 법회에 참석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는 4월초파일 행사를 어떻게 치를지 회원들과 논의중입니다. 한국에 있을때처럼 연등도 달고 재등행렬도 하고 싶는데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올 9월경 건설본부측에서 법당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고, 회원들도 점차 법회를 통해 서로 든든한 법우(法友)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은자 기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이름지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8일 ‘문화의 세기’를 열어가길 새정부의 ‘100대 정책 과제’(잠정안)를 선정했다. 그 안에는 국민의 문화육육이 중요하다는 항목이 있다. 다시 세분하여 문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21세기 문화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지역별 관광문화권 개발촉진은 그중의 한 분야다.

구체적인 시행지침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방문화 육육안은 김대중대통령 당선자를 ‘문화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100대 과제중 하나이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전통문화를 찾아내고 잘 보존 개발하여 오늘의 문화로 가꾼다면 우리나라 전역에 다양한 문화의 꽃이 만발할 것이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지방문화 육육은 불교와 인연이 깊을 수 밖에 없다. 팔도강산 곳곳에서 불교가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추진되고 있는 불교초전지 개발은 그 좋은 사례다.

역사의 베일에 가려있으면서도 설화와 유적이 가야불교를 설명하고 있는 김해지역, 신라불교발상지인 선산

도리사 일대, 마란산타가 들어왔다는 영광, 불갑사 인근이 문화관광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기대가 각별한 만큼 우려 또한 크다.

논안의 성장만을 쫓던 70~80년대의 산업개발이 우리의 산하를 망하게 했다. 그 후유증은 우리의 마음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제 다시 문화관광사업이라는 이름아래 무모한 개발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불교 초전지는 성지다. 불교의 가르침과 전법정신, 역사와 흐름들이 국민을 계도하는 문화현장이어야 한다. 불교성이 잘 못 개발되면 돈방비는 물론 원상회복과제중의 하나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전통문화를 찾아내고 잘 보존 개발하여 오늘의 문화로 가꾼다면 우리나라 전역에 다양한 문화의 꽃이 만발할 것이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지방문화 육육은 불교와 인연이 깊을 수 밖에 없다. 팔도강산 곳곳에서 불교가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추진되고 있는 불교초전지 개발은 그 좋은 사례다.

역사의 베일에 가려있으면서도 설화와 유적이 가야불교를 설명하고 있는 김해지역, 신라불교발상지인 선산

두께 3cm의 황토타트와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실입니까? 맥반석 돌침대보료가 69만원이라는게?

올겨울엔 맥반석 돌침대로 효도하세요! 돌침대는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159만원 MS-220	167만원 MS-210	187만원 MS-201	197만원 MS-370

돌침대 전문생산업체 (주)한국엠에스피는 IMF시대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없애고 돌침대가격의 가격과피를 이룩한 정직한 기업입니다.

비취옥방 전문대리점 모집

창업가이드

- 불행에도 돈벌 수 있다. — 투자액의 10%이상 벌어야 한다
- 목걸이품목이어야 한다. — 경쟁품목이면서 시장이 호러진다
-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다. — 재고 100% 반품가능
- 절주는 권리만 하면 된다. — 영업권에 권리 100%본사지원
- 본사가 든든하다. — 세계 최대 천연옥 광산 국내 독점계약

개설조건

- 취급품목 — 섁스톤, 청맥반석, 비취옥방은돌침대, 천연옥관련상품
- 개설지역 — 전국시, 군, 구 (지역상권보장)
- 담보 5,000만원 이상 대장보유가능자 (월수입500만원)
- A/S보장 및 본사에서 전국 지역 직접 배송

SUNSTONE 청맥반석은돌침대 TV·라디오 광고 중

(株)韓國 MSP
 Mineral Stone Palace Korea Co., Ltd.
 ● 본사 서울시 서초구 백동로 706호 ● 전화 3442-0396(내선) FAX 3442-0349
 ● 영남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5-115 ● 전화 547-2547 ● 영서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5-115 ● 전화 547-2547
 ● 부산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5-115 ● 전화 547-2547 ● 영남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5-115 ● 전화 547-2547